

더불어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후보 등록 마감

- 서울 강서구 3명, 서울 금천구 3명, 경기 오산시 3명, 경기 광주시 4명 후보 등록
-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선거구 기초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하는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의 후보 등록을 2022년 4월 29일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서울 강서구 3명(김승현, 장상기, 한명희), 서울 금천구 3명(박희정, 유성훈, 조상호), 경기 오산시 3명(문영근, 송영만, 장인수), 경기 광주시 4명(동희영, 박관열, 박해광, 신동헌)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는 2022년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며, 경기 오산시, 광주시는 5월 1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현장심사단·전문심사단(40%), 권리당원 ARS투표(30%), 국민심사단 ARS투표(30%)로 진행된다.

현장심사단은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유권자 5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남·여(각 50%), 연령별 20대(20%), 30대(20%), 40대(20%), 50대(20%), 60대이상(20%) 구성된다.

전문심사단은 3~4명으로 여성, 청년, 정치,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다. 전문심사단은 후보자들에게 심층 질의를 통해 후보자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

현장심사단과 전문심사단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후보자에게 직접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비전 등 과정을 거쳐 후보자 능력 검증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한다.

해당 지역 권리당원 및 국민심사단은 토론회 다음날부터 ARS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며,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한다.

한편,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지역은 5개 선거구로 결정하였으나, 대전 서구는 1명의 후보자만 등록하여 ‘해당선거구의 2인 미만의 경선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진행하지 아니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전략후보자를 선정한 후 당무위원회 인준을 요청한다’는 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2022년 4월 29일) 의결에 따라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전 서구에 대한 전략후보자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텔레민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oQD2xsqwjA93PTIYERokg>

2022년 4월 29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